

在滿同胞의 諸問題

◇二十一日 奉天에서

李灌鎔

三十六萬 三千 六百 十萬 哩 卽 우리 朝鮮半島의 四倍를 훨씬 넘는 面積을 자랑하는 滿洲의 大平原에 쫓쫓히 흐터져 사는 百餘萬 同胞의 모든 問題에 對하여 實際로 當該各地에 가서 調查해보지도 못하고 奉天에 안저서 敢히 論議하라는 것은 넘우도 大膽한 생각이다. 그러나 나는 이 機會에 在滿同胞의 諸 問題를 다시 한 번 朝鮮內地에 紹介하여 苦悶 中에 잇는 現代 朝鮮의 한 象徴이오, 朝鮮民族의 『大陸的』發展의 先驅者인 우리 在滿同胞의 擁護熱을 다시 닐으키고자 한다. 우리는 滿洲를 單純히 한 富源으로 보고 在滿同胞는 單純히 經濟的 政治的 口險者로 보는 惡習을 가진 것을 自白하여야 한다. 그 苦痛과 그 難關을 조금이라도 아러 주엇드면 昨冬에 經驗한 迫害를 우리 힘으로 能히 避할 수 잇섯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國內事情에 汨沒하여 海外 同胞 擁護에 까지 힘이 밋치지 못한 것이겠지만 滿洲의 國際的 地位가 얼마나 重要하고 滿洲의 朝鮮人 問題가 將來 如何히 發展될 것을 推測하면 在滿同胞의 問題를 國內政治運動의 當面問題라 안할 수 업슬 것이다. 나는 이에 對하여 아는 바가 적다. 그러나 우리는 하로라도 밥비 在滿同胞의 諸 問題와 그 解決策에 對하여 適任者로 하야금 綿密한 調查를 할 必要가 急迫하다고 밋는다. 또 滿洲에 잇는 個人 或 團體로서도 그 眞相에 對하여 本國에 繼續的으로 通知하여 주기를 바라는 바이다.

× × ×

在滿同胞의 迫害問題는 새로 생긴 問題가 아니다. 밋서 淸, 朝鮮時代부터 韓人移住를 禁止하엿섯다. 그러나 膏沃하고 空虛한 大 平野에 隣接한 薄謝의 人民의 移住를 官憲의 힘으로는 막어내일 수가 업섯다. 近年에 이르러서는 單純히 國內에서 經濟的 壓迫에 依하여 밀리여 나오는 사람 쯤 아니라 不平을 품고 政治的 活動의 根據地를 찾는 靑年도 多數히 移住하엿다. 日本官憲 『적어도』란 말에 우리는 注意하여야 한다. 그것은 自己들이 調查할 수 잇섯

는 것만 가지고 말이다. 十萬 三千 二百 戶와 六十五萬 一千 九百 十六 名의 朝鮮사람이 滿洲에 산다. 그러나 이 統計에는 政治運動者의 數는 包含하지 안혔을 것이며 또 日本官憲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特히 北滿의 同胞는 計算치 못하였을 것임으로 六十五萬 以上 될 것은 우리가 推測하여야 한다. 六十五萬 以上 얼마로 推測하느냐 함에 對하여야는 朝鮮, 中國, 日本 어느 편에서든지 百萬 以下 될 리 업쓸 것이라고 한다. 지금 滿鐵에서 그 分布狀態에 對하여 調査한 것을 引用하면 알에와 갓다.

地 域	一九一六年	一九二四年
奉天省	九八,二三五	一六九,五一四
吉林省	二 一五,七七二	四〇九,九二七
黑龍省	七〇〇	五,五〇〇
關東河	————	
內蒙古	————	
西伯利	七二,七七二	一七九,四一二
總 計	五八七,四八〇	七六六,九六九

또 그 地域을 더욱 細別하여보면 알에와 갓다.(一九二二年 調査)

◇奉天省

輯安	二九,三〇五	通化	一〇,九三〇
□京	二五,八〇五	臨江	一〇,九三〇
寬甸	二一,四八八	□河	一〇,四三九
長白	一七,五六四	安東	六,一一一
□陽	五,九一七	撫順	一,六〇〇
□城	二,八八八	新民	一,三四三
海龍	二,一九三	本溪	一,〇〇〇
開原	一,八六四	遼源	九六〇
西□	一,七〇七	東□	八一三
通遼	八〇八	西安	五一二
其他	二,一一二	計	一五九,九〇七

◇吉林省

間島	延吉,和□, 汪清	二七五,六五九	
琿春	三四,一四六	樺甸	三,五九二
般石	三,〇三二	額穆	三,〇一七
寧安	二,八五六	東寧	一,九二二
敦化	一,六八六	穆稜	一,四五九

吉林 九一二 濱江 七一四
 伊通 四五七 其他一六三,四八〇
 計 四九〇,〇二〇
 黑龍江省 六六一
 總計 六五一,〇九六

이것으로 보면 間島一一六五 平方里의 面積과 四, 四二〇人口를 자랑하는 間島가 在滿同胞의 居住地로는 그 首位를 占하였다 間島에서도 大概是 農業에 從事함으로 在滿同胞의 大部分은 農民大衆이다. 처음에는 中國人 地主에게서 荒蕪地를 빌고 高利로 (六個月間에 倍나 되는 利息!) 資金을 融通하여 良好한 水田으로 曼드러 는 것이 우리 在滿同胞의 功績이다. 처음에는 土地所有를 禁하였지만 只今은 中國에 歸化하여 同胞의 土地所有가 間島에만 十九萬 六千 町步에 達한다.

間島 以外の 다른 곳에서는 土地所有權이 없어서 同胞 大部分이 小作人이다. 市街地 各處에 居住하는 三千六百餘 戶 一萬 三千 七百餘 人을 除한 九割七分은 農業에 從事하는 小作人이다. 그 가운데도 七割은 乾田 三割은 水田耕作에 從事하여 只今까지 水田耕作의 成績이 대단히 良好하다고 傳한다. 中國人은 低濕地에 밭 벗고 勞働하는 것을 질겨하지 안음으로 우리 同胞가 그것을 一個年 乃至 五個年 間빌어가지고 良好한 水田으로 曼드러서 只今은 奉天省에 六三二〇〇町步, 吉林省에 三五〇〇〇町步黑, 龍江省과 內 蒙古에 一〇〇,〇〇〇町步에 達한다하고 總 收穫 二百萬 石을 얻게 되었다하니 在滿同胞의 滿洲開發에 對하는 功績은 世界에 자랑 안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中國人도 水田의 收穫이 乾田의 그것보다 約 三倍나 되는 것을 깨닫고 自己들도 水田耕作을 始作하여 良好한 成績을 얻게 되었다하니 그것도 在滿同胞가 滿洲 뿐 아니라 中國에 주는 조흔 影響이다. 이러한 새 經濟的 發展을 基礎로 한 滿洲의 發展에는 在滿同胞의 貢獻이 多大한 同時에 社會的 政治的 地位에 對하여 當當히 要求할 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不拘하고 昨年 以來 害하기 始作하였다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밭서 三, 四十年 前부터 多少間 迫害가 잇섯다 함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그러나 이것은 個人的 或 局部的이였슴에 對하여 昨年 末로부터 今 年初까지의 迫害는 組織的 一般的이였슴은 在滿同胞 擁護 同盟에서 或은 書面으로 或은 數次의 調查員 特派로 그 眞相을 調查한 것이었다. 只今은 迫害가 어느 곳에서 무슨 形式으로 進行되어 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何如間 一般的으로는 多幸히 이것이 迫害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安心하여야서는 안된다. 우리는 그 迫害의 原因을 簡畧히 追求하여 보는 同時

에 問題의 解決에까지 생각을 미루어 보겠다.

奉天에서 만나본 日本사람, 中國사람, 朝鮮사람 中으로 이 問題에 對하여 陳述한 意見을 綜合하면 그 原因이 單純히 經濟的 或 民族的 뿐 아니라 政治的인 것도 깨닫겠다.

爲先 그 政治的 原因에 對하여 생각하건댄 우리 朝鮮사람에게는 中國에 있어서 웬 주저넘은 治外法權이 있다! 中國官憲은 朝鮮사람을 排斥하고자 하는 意思가 조금도 업다는 것은 妻妻히 說明하였고 또 내가 面會한 奉天 當局者들도 言明하는 바이다. 그러나 朝鮮사람이 滿洲에서 產業에 從事하는 것은 帝國主義의 侵略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打倒 帝國主義의 부르지짐이 充滿하고 利權回復運動의 熱이 白熱狀態에 있는 오늘 在滿同胞의 產業的 活動을 因하여 處處에 日本의 領事館이 設置되고 朝鮮사람 사는 곳마다 日本警察이 잡아가게 됨으로 中國으로서 무슨 方式으로든지 이것을 防止코자 하려는 것이라 한다. 그 싸담에 保安 總司令部의 重大人物도 이번에 나에게 말하기를 『朝鮮사람은 歡迎합니다. 우리가 썩리는것은 그 뒤입니다. 글세 웨들 入籍 안합니까?』함으로 내 말이『入籍이 어려운 것이 안입니다. 入籍한 뒤의 難關이 問題입니다』한즉 『그것이 그리 難關이 안입니다. 朝鮮사람들이 組織的 生活만 한다면 自治까지라도 못밧칠 것이 업습니다』하였다.

그 民族的 原因은 近來 每年 收穫期以後에 이러난다는 滿洲 原野의 民族口에 있다. 近來 山東省에서 쏘는 中國 本部 다른 地方에서 戰亂을 避하여 膏沃한 滿洲 原野로 쏘다져 드러오는 勢力은 莫大한 것이다. 大連에만 上陸한 것이 一九二五年에는 二十一萬 名, 一九二六年 에는 三十九萬餘 名, 昨年에는 八 個月 間에 三十九萬餘 名이오, 昨年 一月로부터 六月까지 長春驛에서 下車한 것이 三十八萬 五千 三百 八十八 名이라한다. 中國官憲으로서는 新人 漢民族에게 土地를 供給하여써 職業生活의 安定을 圖謀하여주랴 할 것이다. 여기 兩 民族사이에 衝突이 생길 것은 自然한 일이다.

經濟的으로는 水田耕作으로부터 收穫되는 것이 從來 中國人の 乾田耕作의 그것보다 三倍가 優秀함으로 中國人 地主는 長期賃借를 二個年 乃至 一個年으로 減縮하여 美化된 水田을 自營코자 함이 그 重要的 것이다.

在滿同胞 迫害의 原因에 對하여 勿論 이보다 詳細한 內容이 잇슬 것이다. 그러나 年來로 잇든 迫害가 昨年에 와서 露骨化되고 쏘 甚한 程度에까지 닐으게 된 것은 그 原因을 政治問題에 찾지 안이치 못할 것이다. 卽 中國이 在滿同胞를 日本帝國主義勢力의 先鋒으로 보는데 그 뿐 안이라 在滿同胞의 大部分은 政治運動者라는 것보다도 本國에서 經濟的으로 破滅되고 滿洲로 살려온 것이다. 살자면 이러한 迫害를 避하여야 하겠고 이것을 避하자면 도모

지 中國에 入籍하여 中國사람이 되어버리어서 한편으로 그 주저넘은 治外法權을 빼어버리고 中國法律에 服從하는 同時에 다른 편으로는 中國法律의 保護를 바들 것이다. 그러나 中國, 特히 東三省에 法治가 實行되나 滿洲, 特히 在滿同胞의 居住하는 地方이 馬賊이 橫行하는 無法大地가 안인가? 巡警의 迫害와 百家長이나 千家長의 壓迫은 그만두고라도 上部官憲까지 民衆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함에 조금이라도 誠意가 있나? 만일 그렇지 안타면 入籍한 뒤의 難關이 入籍 前보다 더욱 甚하지 안할가? 이러한 —또 그 맞게도 다른 理由가 만헛겟지만—理由로 在滿同胞 中에도 入籍問題에 對하여 議論이 紛紛하였섯다 한다. 大概 吉林 方面에서는 入籍하자고 主張하고 奉天 方面에서도 入籍은 하되 이것을 團體的으로 決議까지 할 必要는 업다고 主張하였다 한다. 그러나 入籍을 反對하는 同胞는 別로 업섯든 모양이다. 中國에 入籍한다고 『故國』인 朝鮮을 아조 잇는 것도 아니겟고 또 朝鮮內地同胞들도 그것을 理解 못하는 것이 안이다. 다만 入籍 後의 모든 難關을 엇지할가함이 問題이다. 이 問題에 對하여도 在滿同胞의 運動을 指導하는 이들이 勿論 만히 研究하였을 것이지만 나는 생각하기를 그 唯一한 解決方法은 某氏의 말과 가티 組織生活에 잇다고 한다. 내가 決코 在滿同胞에게 모든 組織生活을 否認하고자 하는 것은 안이다. 只今까지 團體生活이 잇섯지만 今後로는 在滿同胞 全體를 包含한 最高權威로 大衆을 能히 支配할만한 團體가 組織되어서 在滿同胞의 要求를 能히 代表하여 한편으로는 中國官憲과 大衆사이에 媒介役을 하게 되고 다른 편으로는 모든 —地主, 低級官吏, 馬賊 等으로부터 오는—迫害에 對하여 自衛手段을 講究할 必要가 잇서야 하겟다. 이러한 機關이 잇기 前에는 在滿同胞의 諸 問題가 解決되기 困難할 것이다. 그럼으로 入籍과 組織은 서로 せ지 못할 것인 同時에 特히 組織은 무엇보다도 必要한 것이다. 國內에서도 모든 派爭과 分立을 壓倒하고 民族單一戰線을 組織하였거니와 滿洲에서도 統一이란 標語가 國內에 드러온지가 이미 두해가 지나갓다. 그러나 只今까지 그 實現을 보지 못한 것은 무슨 原因에 基因된 것인가? 或 派爭이 있나 잇스면 主義 上인가 政策 上인가 人物系統이나 地方熱을 基礎로 한 派爭가튼 것은 너무도 幼稚하여 國內의 現 階段의 『이데올로기』로는 생각도 할 수 업는 것이다. 만일 派爭이 잇다면 만일 團體와 團體사이에 軋轢이 잇다면 그 派와 그 團體가 統一的 組織 後에 自己 本有能力以上の 힘을 發揮할 것을 袞다려야 할 것이다. 勿論 그 統一的 組織이 만드시 團體的 協同의 形式을 取할 必要가 잇슬가하는데 對하여는 別問題로 하고 무슨 形式으로 하든지 在滿同胞의 諸 問題는 오즉 在滿農民 大衆의 要求를 能히 代表할 만한 粹러서 統制力을 가질만한 團體의 組織이 아니고서는 解決을

볼 수 업슬 것이다.(完)